

인터넷활용과 노인의 삶의 질과의 관계

Research on Relationships between Internet Use and the Elderly's Life Quality

유용식*, 손호중**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세명대학교 행정학과**

Yong-Shik Yoo(yooy@semyung.ac.kr)*, Ho-Jung Son(son7091@semyung.ac.kr)**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인터넷활용이 생활변화, 고독감, 자존감 요인과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노인들의 고독감이 인터넷 활용과 일련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연구 초기 기초모형에서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의 활용이 노인들의 고독감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지만, 최종분석의 결과 오히려 노인들의 고독감이 노인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활용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인들은 자존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에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터넷의 활용이 자존감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모형의 추정결과 인터넷 활용에 기인한 생활변화 요인이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강도가 여타 변인들보다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의 자존감을 높여야 하며, 이러한 자존감 향상을 위해 인터넷 매체를 활용케 하는 것이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인터넷활용 | 생활변화 | 고독감 | 자존감 | 삶의 질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elderly's internet use affects changes in life, loneliness, self-esteem factors, and life quality.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elderly's loneliness has a series of relationships with internet use. In other words, the basic model of the initial research suggests as in previous research a hypothesis that internet use relieves the elderly's loneliness; however, according to the final analysis result, the elderly's loneliness is rather a motive that makes them use internet. Also, it was analyzed that as the old's self-esteem gets higher, they show higher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quality, and internet use affects the improvement of their self-esteem greatly. According to the result of estimating the final model, it was found that the factors of life changes resulted from internet use and influence on the improvement of their self-esteem were far stronger than other variables. Therefore, to improve the old's life quality, it is needed to increase the old's self-esteem, and for improving self-esteem, it will bring a great effect to use the media of internet.

■ keyword : | Internet Use | Changes in Life | Loneliness | Self-esteem | Life Quality |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접수번호 : #120120-006

접수일자 : 2012년 01월 20일

심사완료일 : 2012년 03월 05일

교신저자 : 유용식, e-mail : yooy@semyung.ac.kr

I. 서론

21세기는 고령화 사회이면서 정보화 사회로 특징 지워진다. 고령화 사회는 소득증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 출산율의 저하, 사회구조의 산업화, 도시화 등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정보화 사회는 인터넷으로 대변된다. 인터넷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일상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1]에 의하면, 10대~30대의 인터넷활용률은 99%를 상회하여 개인적 삶의 중요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 연령층의 인터넷활용률은 20.1%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많은 노인들은 인터넷에 접속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고령화 현상과 함께 한국정보화진흥원[2]의 『2010 국가정보화백서』에 따르면, 전자정부 발전지수 세계 1위,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국가정보화 수준 세계 3위, 인터넷 이용자 세계 9위 등 명실 공히 세계 최강의 정보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노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정보소외 및 정보격차 문제를 야기 시켰다[3][4]. 단적인 예로 정보문화진흥원의 2007년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100점에 대비 노년층은 37.4점으로 취약계층 내에서도 노인의 정보격차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반면 김미량 외[6]는 앞으로 무선인터넷 및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노인들의 인터넷 활용은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 문제를 넘어서 노인문제 해결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인터넷의 특징인 상호작용, 동시성, 시공간적 자유로움 등은 오히려 노인들에게 더 유용하며 [7], 정보기술의 활용이 노인의 삶에 있어 현재는 물론 미래, 정서, 친교, 경제 등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한다면 60대 이상 연령층의 인터넷활용률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정보화 사회의 대응이 아니라 노년층의 삶에 있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8].

이처럼 인터넷활용은 노인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인터넷활용이 생활변화, 고독감, 자존감 요인과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노인에게 적절한 인터넷활용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 인터넷활용과 고독감 및 자존감과의 관계

Furlong[7]은 인터넷의 사용은 노인들에게 여가, 재정, 건강관리 등의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해줌으로써 노년기 고독이나 소외 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Gallienne 등[9]은 노인의 컴퓨터 사용이 주는 장점을 자아존중감 증진 등의 정신적 지지 및 사회활동의 증가, 즐거움, 고독감 해소 등으로 표현했다.

Thompson[10]은 은퇴한 노인들에게 인터넷과 이메일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White[11]의 연구에서는 인터넷교육을 받는 노인들은 고독감 점수가 낮아졌으며, 또한 온라인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노인들이 시간을 덜 보내는 노인들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하였다. Lrizarry 등[12]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교육에 참여했던 노인들은 교육 이후에 과학 기술에 대해 덜 불안해하였으며 자존감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컴퓨터에 기초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데도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노인들의 사회적 접촉을 증가시키고 고독과 소외문제를 해결해주며 생활의 편리와 즐거움, 자신감의 회복·유지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다[3]. 손연기[13]는 인터넷 사용은 사회적 접촉 약화나 결여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이나 소외감의 문제를 해결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김재휘 외[14]는 인터넷 사용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 응답자의 73%가 온라인상에서의 친교 확대에 이전의 외로움과 무료함이 감소하였고 시대변화에 대한 자심

감과 함께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자존감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홍명신[15]의 연구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노인들의 과반수 이상이 능숙하게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사회나 가족으로부터의 고독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인터넷 활용은 주관적 안녕감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소외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자신감을 충족시켜 사회참여의 기회상실에서 오는 체감도를 현저히 낮게 해준다고 하였다[1][16].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노인에게 있어서 인터넷 활용은 사회적 고립감이나 소외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이며, 사회에 재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자존감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노인 인터넷활용과 삶의 질과의 관계

인터넷 사용이 노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여 줌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관계망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거나, 사회적 배제와 소외로부터 사회적 통합의 기회를 원활하게 해줌으로 노인 개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7-19]. Smith[20]는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으로 재택근무의 확산과 노동시간 선택이 가능해짐에 따라 노동여건이 유연해지고 사회활동의 교류가 확대되며 정보이용의 편리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터넷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인 자원을 신장시키고 많은 노인들에게 심리적인 행복을 주기도 한다. 즉 인터넷을 이용한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사회 속에서 대인관계를 넓혀주며 대화를 즐길 수 있어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한다[8]. 노인은 신체적인 노화에 따라 행동반경이 한정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터넷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층이기도 한데, 이것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1]. White[22]의 연구에서는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써 인터넷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삶의 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인터넷의 사용이 노인들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보화 활성화 방안으로 인터넷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정보화교육의 활성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23][24]. 구자순[25]은 인터넷사용으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노인들에게 시간 관리를 포함하여 생활의 편리와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하였다. 한국전산원[26]은 노인들의 정보화교육은 지적, 기능적 소외감에서 벗어나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써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충선·이춘옥[27]은 노인정보화는 젊은 층만을 위한 사회변화가 아니라 노년층도 정보화 물결에 편입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보화가 노년층의 삶의 질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신용주[28]는 노인들에게 적절한 정보화 교육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이나 인생의 만족도가 향상되며 심리적인 복지감도 향상되어 정서적인 혜택도 얻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은 인터넷을 이용하기 전에 가졌던 기대감보다 실제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난 뒤 체감하는 만족감이 더 클 뿐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소외감이 감소하였고 생활에 활력을 얻어 만족감을 느끼며 생활한다고 하였다[29].

양영순[30]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과 비이용 노인에 대한 삶의 평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자아통합감이 높고, 자신의 삶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만족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나온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인터넷 비이용자 노인들은 타인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불만족스러운 생활태도를 보였다. 이금룡[31]은 노인 정보화교육을 통한 인터넷 활용이 노년기 적응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상실에 대한 보완의 기능보다는 현재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고 하였다. 신용주·구민정[32]은 정보화교육을 받은 노인과 정보화교육을 받지 않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정보화교육을 받은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정보화교육을 받지 않은 노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인터넷 활용은 사회적 관

계를 넓힐 수 있고, 본인에게 맞는 새로운 삶을 펼쳐 나갈 수 있으며, 나아가 인터넷 활용으로 인하여 심리적 복지감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삶의 질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현재와 미래 상황에 대한 지각된 만족정도라고 정의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포함하였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틀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인터넷의 사용이 노인들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되고, 이는 노인들의 고독감과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들의 자존감 향상과 고독감 완화가 노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가설적 관계를 나타낸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을 위한 기본 모형은 크게 2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종속변수인 삶의 질 이외에 독립변수로 인터넷 사용현황, 사용 후 생활변화, 고독감, 자존감 요인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인터넷 사용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인터넷의 사용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각 변인을 확인하고 영향력의 크기와 경로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적모형의 도출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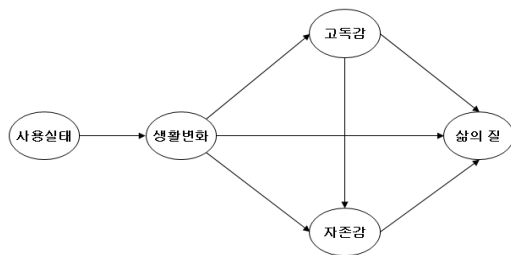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분석틀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충청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무작위 표본추출의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0년 7월부터 10월까지 면접 및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700부를 배부하여 총 65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신뢰성 및 응답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설문지 41부를 제외하고 609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설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조사되었다.¹ 설문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문항들을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사회과학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version 10.2)를 이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을 위해서 AMOS (version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신뢰성과 타당성 검토

인터넷의 사용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각의 개념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varimax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출된 요인군 별로 Cronbach's Alpha(α) 값을 이용하여 측정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최고 .83에서 최저 .78로 충분히 높게 나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 사용실태는 Cronbach's $\alpha = .82$, 생활변화 Cronbach's $\alpha = .81$, 삶의 질 Cronbach's $\alpha = .80$, 자존감 Cronbach's $\alpha = .78$, 고독감 Cronbach's $\alpha = .80$ 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택기준의 차원구성과 측정변수의 타당도를

1 조사대상자의 구체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318명으로 52.1%이며, 여성은 291명으로 47.4%이다. 연령은 65세 이하가 16.4%이며, 65세 이상 70세 이하가 43.3%이다. 70세 이상 75세 이하가 25.2%이며, 75세 이상이 15.1%이다. 조사대상자들의 가족 구성을 살펴보면 독거노인이 17%이며, 부부 가족의 경우에는 29.6%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노인의 경우는 27%였으며, 기타 가족의 경우는 9%를 구성하고 있다.

검증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고유치가 1.0이상이고 누적 백분율이 50%이상인 것을 요인으로 추출하였으며, 요인과 변수 간의 관련성이 최초 요인 행렬보다 더욱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varimax rotation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항목의 표본 적합도는 0.716로 KMO의 판단기준(>=0.5)에 따라 요인분석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잠재변수와 관측변수를 살펴보면 요인 1은 인터넷 활용수준, 인터넷 용어, 이용 사이트,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 이메일 활용, 인터넷 동호회 활동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인간관계의 폭, 유택해진 인생, 젊은 사람과의 대화,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 활용의 지속성, 인터넷 사용의 만족감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요인 3은 삶의 질과 관련된 문항으로 인생의 가치, 여생의 가치, 즐거운 여생, 삶의 지속에 대한 의지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 4는 자존감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요인 5는 고독감과 관련된 문항이 하나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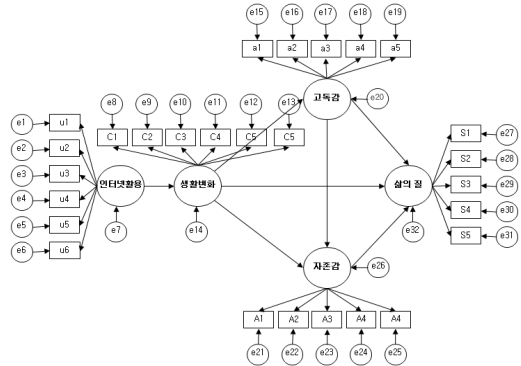


그림 2.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분석 모형

표 1. 기초모형의 모형적합도

		비교기준	수용기준	제안모형
적합도	절대적합지수	$\chi^2(df)$	-	799.790(317)
		p-value	p>0.05	0.000
		적합지수(GFI)	>=0.9	0.910
		조정적합지수(AGFI)	>=0.9	0.893
		평균오차제곱근(RMR)	<=0.05	0.047
경로의 통계적 유의비율		%(유의/전체)		1003%(7/7)

2.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2.1 인과모형의 분석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노인들의 인터넷 사용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인터넷 사용실태, 사용으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점이 노인들의 고독감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인과모형은 분석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론적 고찰을 통해 언급된 4가지 요인들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가설적 관계를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상기 이론적 논의에 기초한 가설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된 제안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경로의 통계적 유의비율을 살펴보게 된다. 상기 제시된 제안모형을 ML 추정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절대적합지수의 산출결과 [표 1]과 같다.

6개의 기준을 통해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한 결과 본 연구의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p-value와 조정적합지수(AGFI)를 제외한 4가지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제안모형에서 제시한 연구가설 7개 중에서 7개가 유의수준 0.05이하, t 값 1.96이상의 기준에서 채택되었다. 한편 추정된 구조모형의 ‘관측변수 적합도’를 통해 잠재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 결과 27개의 관측변수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안모형 경로의 통계적 유의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기초모형의 추정결과

구분	추정치	표준추정치	표준오차	t값	유의수준
인터넷 활용→생활변화	0.620	0.538	0.068	9.165	0.000
생활변화→고독감	-0.114	-0.124	0.047	-2.424	0.015
생활변화→자존감	0.359	0.404	0.046	7.742	0.000
고독감→자존감	-0.178	-0.185	0.047	-3.801	0.000
생활변화→삶의 질	0.204	0.242	0.041	4.991	0.000
자존감→삶의 질	0.503	0.531	0.055	9.157	0.000
고독감→삶의 질	-0.129	-0.142	0.040	-3.214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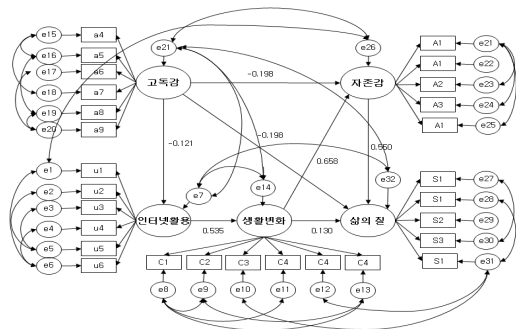
최종모형이 기존 모형과 다른 점은 고독감이 인터넷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적 관계가 추가된 모형이다. 최종 수정모형의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를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과, 14개의 측정지표 중 PGFI와 PNFI를 제외한 12개의 지표가 적합하게 분석되어 수정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삶의 질 영향요인에 관한 경로구조를 분석해 보면, 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활변화, 자존감, 고독감이 직접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터넷 활용은 생활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간접적으로 노인생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용주[28], 안태욱[29], 양영순[30]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최종모형의 추정치를 검토한 결과 제시된 7개의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최적모형의 추정결과

구 분	추정치	표준 추정치	표준 오차	t값	유의 수준
고독감→인터넷 활용	-0.115	-0.121	0.048	-2.395	0.017
인터넷 활용→생활변화	0.605	0.535	0.068	8.920	0.000
생활변화→자존감	0.625	0.658	0.090	6.931	0.000
고독감→자존감	-0.203	-0.198	0.050	-4.040	0.000
생활변화→삶의 질	0.114	0.130	0.045	2.554	0.011
자존감→삶의 질	0.506	0.550	0.066	7.619	0.000
고독감→삶의 질	-0.135	-0.198	0.040	-3.387	0.000

3. 구조모형 영향력 분석

[표 5]에서 언급한 최적모형의 추정결과를 반영한 노인 삶의 질 영향구조는 [그림 4]와 같다.



주: 모든 추정치는 유의수준 0.05에서 채택됨.

그림 4. 영향요인의 구조모형

본 연구의 최종 구조모형의 가설 경로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종속변인인 삶의 질에 직접효과를 가지는 변수로는 고독감, 생활변화, 자존감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된 인터넷 활용과 삶의 질 변인 간에는 간접효과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터넷 활용은 생활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생활변화요인은 직접영향을 미치고 더불어 자존감에 영향을 주어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로분석에 있어서 간접효과(indirect effect)는 독립변수의 효과가 하나이상의 중간변수에 의해서 매개되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나타낸다. 따라서 각 잠재변수가 삶의 질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삶의 질 영향요인 효과분석

독립 변수	효과	간접효과			전체 효과
		매개변수	효과	총계	
고독감	-0.198	→자존감→	-0.109	-0.122	-0.307
		→인터넷 활용→ 생활변화→	-0.008		
		→인터넷 활용→ 생활변화→자존감→	-0.005		
인터넷 활용	-	→생활변화→	0.070	0.095	0.095
		→생활변화→자존감→	0.025		
생활변화	0.130	→자존감→	0.362	0.362	0.492
자존감	0.550	-	-	-	0.550

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직·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한 전체효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존감의 강화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김재희 외 [14]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취지에 맞추어서 상기 분석결과를 검토하면, 인터넷의 활용이 노인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는 하나의 매개가 되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앞서 제기한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들에서는 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7개의 경로를 통해 영향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러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결과 6개의 가설이 채택되었고, 나머지 1개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한편 하나의 가설이 추가되는 모형이 구성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인터넷의 활용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인터넷의 활용을 통해 노인 개개인의 고독감 및 자존감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며, 나아가 이것이 궁극적으로 삶의 질에 미치게 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분석의 결과,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중요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본 연구의 초기 기초모형에서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인터넷활용이 노인들의 고독감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지만, 최종분석 결과 오히려 노인들의 고독감이 노인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활용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인터넷활용이 노인의 고독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의수준 0.1 수준에서는 채택되었으며, 그 역의 관계에서는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0.121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은 고독감 완화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직접효과만을 고려할 때 노인들은 자존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에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터넷활용이 자존감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상기 고독감 변수와 관련된 함의와 함께 고려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인터넷활용은 고독감을 감소시키고(Thompson[10], White[11], 홍명신[15]), 자존감을 향상시킨다고(정순돌 외[3], Lizarry 외[12], 김재휘 외[14]) 언급하지만, 이 3가지 변수들의 관계성을 다시 정

립할 필요성이 있다. 즉 고독감 완화의 동기는 노인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접하게 하고, 이것이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순차적 관계를 상징할 수 있다. 물론 노인들이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로 고독감이 유일한 변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외부와 접촉하고, 소통하려는 의지는 고독감에 의해 발현되고, 이것이 인터넷 활용의 동기로 작용될 것이다.

최종모형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인터넷활용에 기인한 생활변화 요인이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강도가 여타 변인들보다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노인의 자존감을 높여야 하며, 이러한 자존감 향상을 위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또한, 인터넷활용이 젊은 층만을 위한 사회변화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고령사회에 진입한 오늘 날 노년층도 인터넷 및 정보화 물결에 편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활용이 생활의 변화, 고독감 감소, 자존감 증진 등 노인의 일상 사회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궁극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처럼 본 연구가 기존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은 기존 선행연구들은 노인들의 인터넷활용 동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고독감이 인터넷활용과 일련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존 선행연구들은 인터넷활용이 노인의 고독감을 완화시킨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결과 고독감 때문에 오히려 노인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인터넷활용이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노년층들이 쉽게 접근하여 인터넷을 활용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성과 콘텐츠 개발에 더욱 매진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이며, 이를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인터넷활용으로 인한 삶의 질은 개인적·지역적·문화적인 면에서 큰 차이

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충청북도내의 노인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만을 표본으로 연구 했다는 것은 본 논문의 한계로 남는다. 또한 본 연구는 양적 방법을 활용하였으나, 양적방법만으로 인터넷 활용과 삶의 질과의 영향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노인의 인터넷활용에 따른 수준별, 교육기관별, 활용방법에 따른 좀 더 다양한 세부요인 분석과 심층적인 질적 연구가 후속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2009.
 [2]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 2010.
 [3] 정순돌, 박지영, “정보화 교육이 노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집, pp.433-435, 2008.
 [4] A. Kuttan and L. Peters, *From Digital Divide to Digital Opportunity*. Lanham. MD: Scarecrow Press, 2003.
 [5] 서혜경, 김은주, “노인들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4권, 제2호, pp.21-39, 2004.
 [6] 김미량, 김태웅, 김재현, “실버세대의 인터넷 활용 영향요인 연구”,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제10권, 제1호, pp.145-158, 2009.
 [7] M. S. Furlong, “An electronic community for older adults: The Senior Net,” *Journal of Communication*, Vol.39, No.3, pp.145-153, 1989.
 [8] 이복자, 김용우, “노인의 인터넷활용 효과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4권, 제3호, pp.79-105, 2010.
 [9] R. L. Gallienne, Moore, and P. E. Brennan, “Alzheimer caregivers: Psychosocial support via computer networks,” *Journal of Gerontology Nursing*, Dec, 1993.
 [10] M. Thompson, “Computer technology : How it

impacts the lives of older adults,” *Ageing International*, Vol.23, No.1, pp.85-91, 1996.
 [11] H. White, “A randomized controlled trail of th psychosocial impact of providing internet training and access to older adults,” *Journal of Aging & Mental Health*, Vol.6, No.3, pp.213-221, 2002.
 [12] C. Lizarry, A. Downing, and D. West, “Promoting modern technology and internet access for under-represented older population,” *Journal of Technology in Human Services*, Vol.19, No.4, pp.13-30, 2002.
 [13] 손연기, “노인복지에 있어서 정보화의 역할”, 노인복지연구, 제8권, pp.7-29, 2000.
 [14] 김재휘, 김지호, 신상화,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4권, pp.67-91, 2002.
 [15] 홍명신, “노인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3권, 제2호, pp.187-203, 2003.
 [16] 김은향, 노인의 인터넷 활용 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7] H. White, E. McConnell, E. Clipp, and L. Bynum, “Surfing the net in later life: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pilot study of computer use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8, No.3, pp.358-378, 1999.
 [18] L. G. Haddon, “Social Exclusion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Lessons from studies of single parents and the young elderly,” *New Media and Society*, Vol.4, pp.387-406, 2000.
 [19] B. L. Chang, “Internet Intervention for Community Elders: Process and Feasibility,”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Vol.26, No.4, pp.461-466, 2004.
 [20] C. A. Smith, “Family life pathfinders on the new electronic frontier Education,” Summer,

Vol.116, No.4, 1999.

- [21] T. Chen, "Internet use among young and older adults: relation to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Educational Gerontology, Vol.28, pp.731-744, 2002.
- [22] K. White, "The communication of social support within an online community for older adults: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Senior Net community," Qualitative Research Reports in Communication, Vol.1, No.2, pp.33-43, 2000.
- [23] 김수영, "노인을 위한 인터넷 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노인복지연구, 제8권, pp.61-94, 2000.
- [24] 김혜경, "노인정보화교육의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20권, pp.69-94, 2003.
- [25] 구자순, 노인과 인터넷 문화,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2002.
- [26] 한국전산원, 취약계층의 콘텐츠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2002.
- [27] 박충선, 이춘옥, "노년의 정보화태도와 경험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8권, 제2호, pp.25-44, 2003.
- [28] 신용주, "정보화 교육을 통한 노인 임파워먼트의 모색", 평생교육학연구, 제11권, 제4호, pp.33-53, 2005.
- [29] 안태욱, 노인의 인터넷 활용과 기대가치 충족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30] 양영순, 인터넷 활용 만족도가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31] 이금룡, "정보화교육을 통한 인터넷 활용이 노년기 적응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37권, pp.7-30, 2007.
- [32] 신용주, 구민정, "노인 정보화교육과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제13권, 제4호, pp.119-147, 2010.

저 자 소 개

유 용 식(Yong-Shik Yoo)

정회원



- 2003년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7년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관심분야> : 사회복지, 노인복지, 지역복지, 다문화

손 호 중(Ho-Jung Son)

정회원



- 2001년 : 영남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2005년 : 영남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관심분야> : 행정조직, 행정PR, 조직진단, 감성자본